





2025 | Vol.16 www.orchem.com



One Team One Dream One Heart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의 언어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를 바탕으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발 행 처 (주)오알켐

발 행 일 2025년 4월 1일(통권 제 16호)

편집/디자인 김정아

기 자 단 ORCHEM (본사) 김시연, 최수진

ORCHEM (중국법인) 莫秋玉 Mo qiu yu

ORCHEM(베트남법인) Jang

ORC Solution 박승영, 김준용

대 표 전 화 031-488-0600

홈페이지 www.orchem.com



01

We are ORCHEM

. . .

03 ··· 연구소 팀 Interview

08 … 공채 11기 1주년 소감

09 ··· 신규 입사자 Interview

02

Inside ORCHEM

. . .

11 ··· 2025 Vision Drawing

13 ··· O!pening day Review

16 ··· 2025 연구소 Workshop

17 … '2중 리간드 촉매' 특허권 취득

19 … 해외법인 '우수 직원상' 수상자 인터뷰

23 … 베트남 법인 연말 파티

03

ORCHEM-NESS

.

25 ··· CA 3기 Leadership 교육

27 … 전력 절감 캠페인

28 ··· ORC Solution 국내 여행지 소개

29 ··· ORCHEM 人의 취미생활

31 … 아영이의 출장 일기

33 ··· 업무 효율 UP! AI Tool 소개

04

.

35 ... O!News

36 ··· O!Quiz

We are ORCHEM

One Team

O.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은 연구소에 있는 본부 전체를 관리하고, 연구 과제들을 기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크게 연구관리와 연구기획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연구관리 파트에서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연구원들을 교육하거나 실험실의 안전, 법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획 파트에서는 연구소의 기초가 되는 기술 동향 파악, 특허 출원, 정보들을 찾아 보고서화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VINA R&D 연구센터가 제2의 연구소로써 본사연구소와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하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궁극적인목표는 연구소의 Control tower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팀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도전하며 성장해 갑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한 개인의 특출한 역량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우리의 역량으로 완벽한 성과를 이뤄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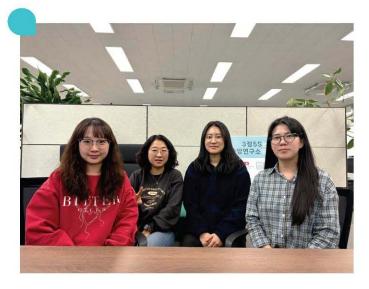




Q. 팀 분위기가 궁금해요!

저희 팀은 오알켐에서 신/구가 적절히 조화롭게 공존하는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허리 직급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팀장님은 본인이 권위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정이 많고, 팀원들을 잘 챙겨주신답니다. 저희 팀이 서로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처음으로 넷이 하게 된 회식 자리에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ㅎㅎ 그 덕분에 한 3개월 정도의 거리를 뛰어넘어 빠르게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물론 즐거웠던 기억이 생생하지는 않아요^^ 또 주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기 때문에 자주 마주쳐서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눌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렇게 나름 서로서로 기름칠을 해가며 넷이 다리를 굴려 앞으로 나아가는 오리배 같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소 A팀을 소개합니다



인터뷰/글. 사내 기자단 최수진 연구원

팀장 | 조소연 책임 연구원 팀원 | 신상희 선임 연구원, 김시연 연구원, 박연수 연구원

연구소의 Control Tower!

지난해는 적응에 집중하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한 단계 뛰어오를 때입니다.

서로의 간극을 좁혀가며 한발 한발 발맞춰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연구소 A팀을 소개합니다. 속 깊은 이야기와 유쾌한 웃음이 가득했던 인터뷰 현장으로 떠나보아요!

Q. 고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 팀만의 고충이라면 레퍼런스가 없는 업무가 너무 많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공부를 매일 해야 하고,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새로 만들어서 교육해야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맡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힘든 것 같아요. 또 연구소 전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다 보니 타팀에 요청하거나 의견, 피드백을 받아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연구원분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 · • · · 연구소 A팀을 소개합니다

0.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책임님의 모토나 노하우가 있다면?

조소연 책임 연구원

모토나 노하우라기보다는 직장 생활하면서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1가지는 '눈치'예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는 느낌이 아닌 **상대를 살핀다는 느낌의 눈치!** 예를 들면 개발팀에서 실험을 하다가 일찍 끝난 경우 다른 사람에게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라고 먼저 물어보면 함께 업무를 일찍 끝낼 수 있고 또 딱딱한 분위기가 풀리기도 해요.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팀의 분위기, 직장 생활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O. 전에 속했던 팀과 현재 속한 팀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신상희 선임 연구원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매우 다릅니다. 다른 팀에서 배우고 익혔던 업무들이 현재 팀에서 업무를 할 때 든든한 발판이 되고 있어요. 자사 제품에 대한 이해도나 사용 경험이 있다 보니, 자사 제품과 관련된 일은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전에는 서 있는 시간과 앉아 있는 시간이 반반이었다면, 지금은 100% 앉아서 업무를 하고 있어 가장 힘들었고 힘듭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두 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먼저 연구소 분들께 불도저 같은 성격을 가진 저를 7년 가까이 품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팀원 분들... "저를 감당해 주세요!"

Q. 최근 입사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실제 업무를 해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김시연 연구원

지원 당시 공고에 업무로 기술 기획, 제품 기획, 시장 동향 분석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되겠구나' 하고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공고와 비슷한 업무를 하게 되었고, 관리 업무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 R&D 과제 관리나 연구원 관리, 연구실 관련 법률들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업무에 적용할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할 때 보람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또 제 전공이 화학이 아니다 보니 입사 초기에는 화학 분야가 많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처음보단 많이 익숙해져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Q. 1년간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박연수 연구원

조금 웃긴 에피소드인데 작년 워크샵 때 사업 계획을 발표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에는 입사한 지얼마 안 되어서, 많은 임직원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너무 긴장되는 일이었거든요. 대본도 쓰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발표할 때는 엄청 떨어서 끝나고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업무에 적응도 잘하고 개별 프로젝트도 맡을 수 있는 만큼 성장한 것 같아요. 전무님이나 팀장님께 보고드릴 때는 아직도 좀 긴장되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긴장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이나 발표를 많이 하게 될 텐데 더더욱 성장한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O. 2025년도 목표

조소연 책임 연구원

책 20권 읽기! 아직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최근에 결혼을 했다 보니 집을 돌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2개월 동안은 집안일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3월부터는 책을 읽어볼 생각입니다. 원래는 인문학 위주로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한 작가가 인터뷰에서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한 책 읽기를 즐기는 사람들을 향해 '소설이 주는 목적 없는 작은 쉼을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목적 없이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소설 책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신상희 선임 연구원

올해는 저희 팀이 두각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은 팀에 처음 와서 적응하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다들 두각을 나타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 팀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시연 연구원

아직 배우고 있고 부족하지만 올 한 해에는 교육도 많이 듣고 자료도 많이 만들어서 팀 안에서 제 역할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박연수 연구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개인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 메커니즘 풀입니다. 자사 제품이나 공정, 발생할 수 있는 불량 유형 등에 대해 메커니즘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하는 일이에요. 올해는 일단 매달 1개씩 총 12개의 메커니즘을 정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내, 외부적으로 많은 도움이될 것 같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6

0

We are ORCHEM

김성범 연구원



우연한 기회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단기간에 많은 업무를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업무 지시가 내려왔을 때 모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을 채워볼까 합니다.

김나영 연구원

김학범 사원

벌써 입사한 지 1년이

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동기들이 힘

돼주고, 구미 공장 분들

께서 많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속적인 실무와 외부

교육 참석으로 전문적인

'환경안전팀'이 되겠습

니다. 훗날 "환경안전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입사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지난 1 년 동안 함께 일하는 동료들 덕분에 많이 성장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스킬을 향상하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남민정 연구원

입사 후 1년이 지났다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자난 1년간 업무를 배우고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한 모습 보여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아 사원

1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어요!
이젠 회사도, 업무도 많이 적응한
것같습니다. 특히 동기들이 있다는
게 많은 힘이 되었어요,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동기들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1년이 즐거웠어요. 앞으로 더 능숙하고 재미있게 일 해보고 싶어요. 한 해가갈 때마다 훌쩍 성장해 있는 11기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구미 환경안전 김학범

11기 1주년 축하합니다 :)

심나영

연구소 김관현 김성범 김시연 김나영 남민정 박연수 이훈희 정아영 정준 조재형 최수진 홍채련 전사기획팀 김정아 구미 환경안전 김학범

입사(1주년) 소감

→ 이훈희 연구원

어느덧 입사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지난 1년 동안 고객사대응 업무를 맡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사와의 소통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변 동료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한단계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사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회사에도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전문성을 더욱 키우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입사 1주년을 맞아 초심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조소연 책임 연구원

평소 소통해야 할 부분은 잘 전달하고 있어서 지금 특별하게 해줄 이야기는 없지만, 다만, 일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일이 많이 주어진다는 것은 결국 일을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더 신경 써서 인정을 받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는 한 해가 되어보자 잘해봅시다! 파이팅!

신상희 선임 연구원

먼저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좀 더 본인 의견을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연구원 두 분이 말 수가 정말 없어요. 그렇다고 사석에서 처럼 업무 중에 술을 마실 수는 없으니...! 팀원들이 올해는 좀 더 업무에 몰입해서 업무적으로 신선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어요.

팀장님에게는 응원을 많이 받고 싶어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김시연 연구원

올해의 다짐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부터는 사소하거나 애매한 것들 모두 책임님과 선임님께 많이 여쭤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두 분을 많이 귀찮게 할 것 같은데, 언제나처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연수 연구원

사실 제가 처음 도전해 보는 일이다 보니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전에는 실험 같은 정해진 일만하다가, 무언가를 기획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구요. 그래도 저희 팀 조소연 팀장님과 신상희 선임님께서 늘 더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기인 김시연 연구원도 있어서 일하는데 더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바라는 점보다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늘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입사자 Interview



Hassan Zubaida e78

영업관리팀 이수영 사원



O.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4년에 연구소에 입사한 Hassan Zubaida 연구원입니다. 저는 2021년에 국가장학생으로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지난해 8월 연세대학교에서 유기화학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MBTI는 ENFP이고 레이싱 보기, 독서 그리고 필름 사진 찍기가 취미입니다!

Q. 오알켐에 입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유기 합성에 관심이 많았고, 새 연구 스킬을 배우고 싶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워라밸도 잘 누릴 수 있고, 직원들의 건강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일하기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한 만큼 혜택도 많은 회사 입니다.

Q.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한국에서 지내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2021년에 한국 정보의 국가 장학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한국이 안전하고, 살기 좋고, 혜택 많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편의시설 많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배달이나 택배 시설도 빠르고, 좋은 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만, 종교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더라구요. 또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리운 마음이 큽니다. 종종 문화 차이를 느낄 때도 있어요.

Q.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보자면?

인턴 기간 발표했던 일이요! 그날 엄청 긴장되고 무서웠지만 발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많은 칭찬을 받아서 너무특별한 날이었습니다.

Q. 부서 적응 중 고마웠던 에피소드나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박민지 선임 연구원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요. 함께 일하면서 잘 챙겨주고 항상 식사,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지난해 겨울 서울에 100년 만에 눈이 많이 오던 날, 박민지 선임 연구원님과 김기훈 선임 연구원님이 휘날리는 눈에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저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오알켐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알켐에서 이루어지고 싶은 목표는 multi-talented 프로 연구원 되는 것입니다!

O.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업관리팀에서 내수 업무 담당하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O. 오알켐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연히 청년친화 강소기업 관련 기사를 통해 오알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무 환경과 복지제도가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직원들의 편의와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에서 직원들을 위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던 중, 원하는 직무의 채용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보자면?

처음으로 마감을 맡았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매출 집계와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업무를 했었는데, 문제없이 마감을 끝냈을 때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Q. 사무실에 쟁여 놓는 최애 간식이 있나요?

요즘 제 최애 간식은 "비쵸비"예요. 3달째 제 최애인거 같아요. 오카페에서는 던킨 팝콘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근데 오카페 간식들은 다 맛있어서 항상 만족스러워요.

Q. 부서 적응 중 고마웠던 에피소드나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영업관리팀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영업관리 직무가 처음이어서 업무가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모두 많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셔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오알켐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성장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맡은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실직적으로 팀 목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10

Inside ORCHEM

One Dream

우리는 고객사, 지역 사회, 임직원들에게 사랑받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임직원의 행복에서 첫 걸음을 시작해 한국 매출 1위, 총매출 2000억원, 글로벌 top3에 도달하며 모두가 사랑하는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2025 VISION DRAWING

1월 7일, 옹기종기 모여 있는 사람들로 붐비는 로비, 바로 비전 드로잉 때문인데요. 여러 조각으로 나뉜 캔버스를 하나씩 집어 들고 채색에 열을 내봅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엉망이 되어가는 손과 그림들. 서로의 모습과 미술 실력에 웃고 또 놀라다 보면 어느새 모습을 갖춰 갑니다. (물론 전문가분들께서 한 번 더 덧칠해 주시는 건 안 비밀!) 퍼즐처럼 하나씩 맞아가는 조각들을 보고 있자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 어딘가를 차지하고 있는 내 파트를 찾아보는 것도 은근한 재미랍니다. 완성한 작품은 1층 로비에 전시했습니다. 흐름을 같이 하는 2023, 2024년도 작품과 함께 나란히 걸리며 비로소 2025년도 비전 드로잉이 탄생했습니다.



Plating NO.1 Global NO.1

2023년, 한 방울에서 시작된 우리의 꿈을 기억하시나요? 2025년의 오알켐은 나무를 넘어 숲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꿈이 큰 물줄기를 만들고, 그 속에서 많은 생명과 열매가 열리더니, 마침내 큰 숲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을 넘어서 이젠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오알켐, 모든 임직원이 그 꿈을 함께 그리며 완성해 가길 기대해 봅니다.







• • •

Inside ORCHEM

2025O!pening day

Review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온 O!pening day. 모든 오알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겨울 추위로 얼어 있던 분위기도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도착하자 금방 따뜻하게 녹아내립니다. 어딘가 모르게 들뜬 웅성거림도 잠시, 오알켐의 미래를 위한 소통의 시간입니다. 밝은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 O!pening day! 그 현장의 모습을 열어 봅니다.









1월 8일 시흥 비즈니스센터에서 2025년도 O!pening day 행사가 열렸습니다. O!pening day는 한 해 수고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나아갈 2025년도의 방향을 함께 소통하는 시간으로 매년 1월 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140명의 본사 직원들과 구미 공장 직원, 그리고 베트남 법인과 중국 법인에서 깜짝 방문한 직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오프닝 데이 행사는 2024년도 스케치 영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한 해 주요 성과와 이슈들을 돌아보며 고생했을 서로에게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COO 이혜지 상무님은 2024년도 경영 실적 및 2025년도 목표 발표에서 세 가지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오알켐은 올해 글로벌 시장확장과 고부가 가치 제품 매출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을 이뤄낼 계획입니다.





이어서 각 팀 팀장님의 목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Key word'를 바탕으로 약 100초간의 브리핑을 통해 한해 팀의 방향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현대표이사님은 CEO 메시지에서 'Plating NO.1, Are you ready?'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간 오알켐이 이뤄온변화와 성장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더 나아가 'ORCHEM Target' 4가지를 제시하고 앞으로 오알켐이 마주해야 할변화를 공유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오알켐의 과거와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를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승진자











CTO | 조동현 전무이사 COO | 이혜지 상무이사 국내영업팀 | 김주석 수석, 구매자재팀 | 최대성 책임, 전웅빈 선임, 변광호 기사 전산정보팀 | 고태윤 책임, 황소영 선임 환경안전팀 | 공진호 선임 품질관리팀 | 이원희 선임 MTV 제조팀 | 주진성 기사 연구소 | 안현규 선임 연구원, 장상원 선임 연구원, 김익성 선임 연구원, 강우람 선임 연구원, 박혜연 선임 연구원, 임미연 선임 연구원, 최다정 선임 연구원, 김예술 선임 연구원, 이석희 선임 연구원, 김태규 선임 연구원, 이준석 선임 연구원, 김과현 선임 연구원

▲ 2024년 4분기 오알켐인 상



대외부문 | 연구소 유영호 책임 연구원 대내부문 | 구미제조팀 김재민 선임 핵심가치 | 경영혁신팀 김주완 책임

● 2024년 오알켐인상



대외부문 | 연구소 지성배 수석 연구원 대내부문 | 재무회계팀 임수정 선임 핵심가치 | 연구소 김부연 책임 연구원

● 2024년 서전상



국내 영업팀 | 김성진 책임 연구소 | 박성우 선임 연구원 품질관리팀 | 박종기 선임 MTV 제조팀 | 심재성 사원

· · • · · 2025 O!Pening day Review

● 2024년 올해의 팀







최우수팀 | 연구소 B 우수팀 | 연구소 C 장려팀 | 전사기획팀

● 해외법인 우수 사원



중국법인 | 인사총무 张斌(장빈) 사원 베트남 법인 | R&D Center Nguyễn Văn Mạnh (마익) 베트남 법인 | 구매팀 Nguyễn Thị Hiến (히엔)

● 2024 우수 동호회





구미 런닝 동호회 / 본사 베드민턴 동호회

● 팀 목표 Key Word







Inside ORCHEM

· 연구소 WORK SHOP

글/사진. 사내 기자단 김시연 연구원





1월 23일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중앙 연구소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조동현 연구소장님의 중앙 연구소 전체 목표 공유를 시작으로 2025년도 연구원 교육 안내 레크레이션 활동, 그리고 '즐겁고 만족하는 회사 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한 조별 토론이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사장님과 이충호 대표 이사님의 말씀으로 워크샵은 마무리 되었 습니다. 바쁜 업무로 인해 평소 나누기 힘 들었던 이야기와 생각을 알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나눈 이야기 들을 통해 더욱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연구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 2중 리간드 촉매 특허 취득

자료제공, 연구소 신상희 선임 연구원

오알켐이 자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무전해 화학동도금 공정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팔라듐 이온 촉매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는데요, 리간드를 2중으로 사용해 수용액상 팔라듐 이온의 안정성을 향상한 것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촉매의 단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 2중 리간드 촉매 핵심 기능

- 기존 제품 대비 액 안정성 50% 향상
- 상온 및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방치 시 액 무너짐 현상 및 색상 빠짐 현상 기존 대비 2배 이상 개선

화학동도금 공정에서 금속 이온의 균일한 증착을 유도하여 도금 품질을 높이고 기존 촉매 제품 대비 뛰어난 액 안정성으로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현재 해당 제품의 개발로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소는

연구소는 오알켐만의 고유 기술 축적을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기동도금 약품의 주요 기술인 레벨러(Leveler) 합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무전해 화학동도금 뿐만아니라 전기동도금 약품 시장에서 영향 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약품에 대한 개선과 신규 약품에 대한 연구로 동도금 약품 분야 NO.1으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 해외 법인 "우수 직원상" 수상자



인터뷰/글. 사내 기자단 莫秋玉 Mo qiu yu 사원 (중국 법인) 인터뷰/글. 사내 기자단 Jang 사원 (베트남 법인)



인사총무팀 **장빈 사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알켐 중국 법인에서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张斌(장빈·Grace)입니다. 2024년 5월 입사, 오알켐의 일원이 되어 영광입니다!

O. 인사 업무를 경험하면서 배운 점이 있다면?

졸업 후 줄곧 인사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업무에 대한 애정 덕분에 인사 업무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사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문제 해결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워크의 중요성과 다양한 과제의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인사 업무에서의 발전과 성과는 저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우수 직원상을 수상하셨는데,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우선 O!pening day에 참석하게 되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무대에 서서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기쁨을 나눌기회를 주신 회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입사원으로서 2024년 올해의 우수 직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 상은 제 업무에 대한 인정이자,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이 영광은 동료들의 지지와 협력, 우수한 팀 분위기, 주도적이며 성실한 업무 태도 또 제 업무에 대한 회사의 신뢰와 지원, 그리고 중국 절강 법인 모든 동료의 노력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O.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본사에 방문했을 때, 역동적이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 교육에 대한 회사의 관심과 조직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리더들의 세심한 배려와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 있어 전반적으로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Q. 한국에서 즐거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해외 법인도 O!pening day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해외 법인 구성원들을 환대해 주신 인사총무팀을 비롯한 본사 여러 부서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좋은 추억을 얻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법인 직원들과 스키 여행을 다녀왔는데, 눈과 얼음의 매력과 팀워크의 힘을 많은 웃음과 즐거움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신입사원으로서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오알켐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직 개선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훌륭한 팀에서 여러 리더 및 동료들과의 소통, 협력을 통해 역량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겠습니다. 동시에 업무 경험을 계속 쌓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발전을 이뤄가겠습니다.

O. 2025년도 소망은?

새해에는 회사가 더욱 번창하고 눈부신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회사의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 · 해외 법인 "우수 직원상" 수상자 인터뷰





R&D 센터 **마익 사원**

안녕하세요, 저는 오알켐 베트남 법인 R&D Center에서 근무하고 있는 Nguyễn Văn Mạnh (마익)입니다. O!pening day 덕분에 두 번째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고,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본사 직원들의 업무 태도가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필수 장비들도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지속해서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베트남 법인 직원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업무 인식 개선과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베트남 법인 직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 출장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알켐 베트남 법인 구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Nguyễn Thị Hiến(히엔)입니다. 이번 '우수 직원'으로 포상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회사에서 많은 한국인 직원과 근무하고 있지만, 직접 한국에 방문해 한국 회사 문화를 직접 경험할때면 여전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모든 분들이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O!pening day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정말 기뻤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이런 멋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 또한 한국에 다시 방문할 기회가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베트남 법인 연말 파티

사진/글. 사내 기자단 Jang 사원 (베트남 법인)

2024년 마지막 달, 베트남 법인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파티가 열렸습니다. 연말 파티는 단순한 행사 그 이상으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한 해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와 즐거운 팀빌딩 활동들 덕에 스트레스도 풀고 직원 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한 해 수고한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을 주고받다 보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베트남 법인의 연말 파티는 새해 모두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목표를 공유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각자 팀에서 자신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고, 협력과 협업의 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다집니다. 단순한 오락의 시간이 아닌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극복하며, 새로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베트남 법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해 주세요!























ORCHEM -NESS





One Heart

명확한 꿈을 공유한 우리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이유를 이해합니다.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일을 즐길 줄 아는 오알켐인입니다.



오알켐의 조직 문화를 이끌어갈 CA(변화 관리자) 3기가 1월 8일 출범했습니다. 책임/선임급 분들이 '일 잘하는 오알켐'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는데요,

2월 20일에는 안산상공회의소에 모여 '행복한 동반 성장 오알켐,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리더쉽 교육을 받았습니다.

CA 37 Leadership Workshop



CA 37

전사기획팀 민선경 책임·MTV 제조팀 박진희 책임 연구소 신상희 선임 연구원·유영호 책임 연구원 오동환 선임 연구원·김대균 선임 연구원 영업관리팀 이정은 책임·인사총무팀 강형욱 책임·김채연 선임 협력적 커뮤니케이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부서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CA와 오알켐 구성원이 해야할 일을 함께 고민해보고 또 어떻게 오알켐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마무리는 역시 맛있는 식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 덕에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ORCHEM -NESS

전력 절감 캠페인

नैराईंश जापता Mission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보호해요!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안 쓰는 전자기기는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에너지 절약 습관으로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답니다. '에너지 미션 4가지'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지금부터 실천합시다!

Daily Mission 4



ORCHEM -NESS

ORC Solution 국내 여행지 소개

길었던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연휴, 오랜만에 차박을 떠났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으로 다녀왔는데요, 인상 깊었던 장소 몇 군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뉴코아 아파트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 뉴코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도에는 400만 원에 매매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1,00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해요! 시골이긴 해도 주변에 마트나 편의점, 학교, 숙박 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사는 데 큰 지장은 없어 보였습니다. 집값이 이렇게나 저렴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 천등산 금탑사

천등산에 있는 금탑사에 다녀왔습니다. 금탑사는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10분가량 산을 오르니 보였습니다. 사찰 규모도 꽤 크고 주변에 비자나무숲이 같이 있어서 식사 후 방문하기 안성맞춤입니다! 마복산에 있는 마복사에도 다녀왔는데요, 마복사는 산 정상쯤에 있어요. 제가 갔을 당시에는 눈이 녹지 않아 위험해서 중간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다녀오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고흥군엔 나름대로 규모 있는 절들과 주변에 산과 바다가 있어서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한 번쯤 살아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별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동네입니다. 20분 내외로 배를 타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섬과, 낚시를 할 만한 항도 있어서 바닷바람 맞으며 드라이브하기 좋은 곳이에요. 차박할 만한 장소도 꽤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ORCHEM人의 취미 생활 〈클라이밍 편〉 의사진 사내기자단 최수진 연구원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쏟아지는 업무 하랴, 주변 사람들 챙기랴, 내 시간 보내라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하시죠. 이 많은 것들을 감당해 내려면 '체력 관리'가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슬슬 날씨도 따뜻해지니 운동을 다시 시작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도 챙기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클라이밍' 어떠신가요? 평소 클라이밍을 즐겨하는 최수진 연구원이 직접 소개하는 클라이밍의 매력! 한번 알아보아요!





클라이밍이란?

암벽 등반을 말하며, 취미 생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요즘, 실내에서 인공 암벽을 오를 수 있는 실내 클라이밍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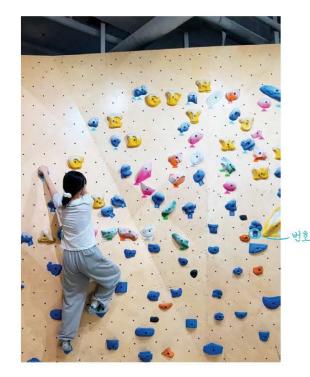
볼더링

시작 지점(Start)부터 끝 지점(Top)까지 같은 색깔의 홀드만 잡고 밟으면서 올라가는 방법



실내 클라이밍 종류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면 볼더링을, 자세 연습이나 힘을 기르고 싶다면 지구력을 추천합니다!





번호가 매겨진 홀드를 적으로 잡으며 긴 코스를 이동 하는 방법. 잡는 홀드만 정해져 있고, 아무 홀드나 밟아도 된다는 점이 '볼더링'과 다른 점!



(단점)

(장점)

안전장비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고, 부상 위험이 높다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도움 닫기 등의 기술이 없으면 등반하기 어렵다

전신 운동이 되며, 평소에 안 쓰던 다양한 근육을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난이도를 도전하면서 높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너무 높이 올라가면 무섭다ㅠㅠ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운동이다!

실내 클라이밍의 장단점

개별 장비 없이 몸만 가서 쉽게 즐길 수 있다

주의할 점

다치지 않도록 무리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 도전하기 Top까지 올라간 후 뛰어내리지 말고 홀드 하나씩 밟으며(천천히 내려가기

등반 순서 잘 지키고, 옆 사람 경로 방해하지 않기

매트 위에 앉거나 물건 올려두지 않기,

아이의 VINA R&D 출장일기



글/사진. 연구소 정아영 연구원

WED

THU

SUN

VINA R&D 센터에서 만난

변지윤시림을

흐림

2/12

조소연 책임 연구원님과 신상희 선임 연구원님이 VINA R&D Center에 오셨다. 한국에서만 뵙다가 베트남에서 만나니 너무 반가웠다. 인사를 나눈후, 나는 디스미어 및 화학동 R-Cost 개선평가 업무를, 조소연 책임님과 신상희 선임님은 연구실 프로젝트 및 환경 현황 파악 업무를 시작했다. ★★★★★★★★★★

업무 후, 김남하 전무님, 안희철 상무님, 양승환 상무님, VINA R&D 센터 출장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환영회로 삼겹살 회식을 하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이후 회사 10분 거리에 있는 Go-Mart 에서 과자와 요거트를 사왔다.베트남은 요거트가





정말 맛있는 곳이다. 남녀노소, 회사 임직원분들이 좋아할 것이라 감히 예측해 본다. ㅎㅎ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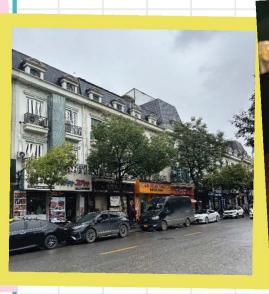


8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디스미어 및 화학동 R-Cost 개선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E`Less Copper PART 리더들과 평가 계획을 공유했다. 약품 농도 농축에 따른에이징 평가도 진행했다. 본사와 VINA R&D Center사이에 문화 차이가 있지만 평가 방법을 통일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본사의 평가 노하우를 공유하고 VINA R&D Center의 장점을 파악하며 효율적인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노이 맛집을



김주연 책임 연구원님과 김태규 선임 연구원님과 함께 하노이에 있는 한인타운에 놀러 갔다. 베트남 내 한국인 '미딩'이라는 동네였다. 미딩은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랜차이즈도 있고 베트남 현지식도 있는 동네였다. 그중 가장 맛있었던 것은 베이글이었다. "Everything `N Bagel"은 다양한 베이글과 크림치즈가 있는 카페였다. 나는 소금 베이글과 시나몬 카푸치노를 먹었다. 처음엔 기대 없이 먹었는데, 한입 먹는 순간 쫄깃함과 짭짤함이 공존하는 정말 맛있는 베이글이어서 감동이었다. 그래서 하노이에 간다면 정말 추천하고 싶은 메뉴이다!





어떻게 하면 '일잘러'가 될 수 있을까요?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고민하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요즘 '일잘러'들의 숨은 비법, Al Tool! 함께 알아보아요.

클로바 노트

클로바 노트는 음성 인식 기능을 기반으로 한 Al입니다. 저도 인터뷰나 회의록 작성 시에 요긴하게 사용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고, 요약까지 해준답니다. 해당 서비스는 전부 무료이며, 월 300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로바 노트와 함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 보세요!

3

Chat GPT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AI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Chat GPT는 대화형 AI로, 챗봇에 질문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로 자료 조사나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데, 초안 작성, 요약, 분석, 이미지 생성 등 작업에도 유용하답니다. 단, 무료 버전은 2022년까지의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해준다고 하니, 활용할 때 참고하세요!

노션 AI

Chat GPT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Al인데요, 특히 글쓰기, 문서 작성에 특화된 Al입니다. 초안 작성, 번역, 인사이트 도출, 데이터 분석, 회의록 정리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협업에도 유용합니다. 동시 편집이나 피드백, 프로젝트 관리 등 협업을 위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단, 무료 버전은 사용 가능 횟수와 초대 가능 인원수의 제한이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2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기획안에 들어갈 딱 맞는 이미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시나요? 어도비 파이어 플라이를 사용해 보세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텍스트 기반의 AI로,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AI가 해당 설명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또한 그림체 옵션을 제공해 원하는 스타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유로 버전을 구독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버전에서는 일부 기능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Grammarly

영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Grammarly를 활용해 보세요. 이메일,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글쓰기에서 문법 오류 체크와 표현법 제시, 스타일(미국식, 영국식, 캐나다식, 호주식)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유료 버전에선 더욱 정교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간단한 문서 작업이라면 무료 버전도 충분히 유용하답니다!

O!News

2025 1분기 오알켐 소식

- 1월 3일 HR제도 (임금 및 평가/교육 제도) 설명회
- 1월 7일 Vision Drawing
- 1월 8일 2025 O!pening day
- 2월 3일 오알켐 촉매 용액 관련 특허권 취득
- 2월 19일 윤리 교육 시행
- 2월 28일~3월 3일 임원진 중국 절강 법인 출장



오알켐 임원진이 2월 28일 ~ 3월 3일까지 중국 절강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회사 소개, 사옥 투어를 진행하며 법인에 대한이해도를 높였고, 임원 동호회를 통해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3월 13일 회사 소개 영상 공개



회사 소개 영상이 3월 13일 전사 공개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작을 시작해 올해 완성된 이번 영상은 톡톡 튀는 구성과 트렌디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홍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그룹웨어>>문서관리>>오알켐 회사소개

● 3월 17일 ESG 슬로건 공모전 진행



ESG 슬로건 사내 공모전이 3월 17일~24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ESG 경영 체계 강화와 지속적인 ESG 경영 추진 의지를 다지기 위함인데요,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슬로건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월 17일 구미 공장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S등급(85.22) 취득

오알켐 구미 공장이 2월 18~20일 실시한 2025년도 상반기 공정안전보고서(PMS) 이행 상태 평가에서 S등급(85.22)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오알켐 구미 공장이 안전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O!Quiz



과자 이름 맛히기

정답을 적어 김정아 사원 (junga 9434)에게 이메일 제출! 랜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번, 손이 가요 손이 가~



4번. 너이거한 통다 먹어본적 있어?



2번. 내 멘탈 같이 연약한 과자



9년, 제 최애 것은 될거에죠... 초코 맛도 있고... 최근에 밤 티라미수 맛도 나왔대요



3번. 솔직히 겉에 과자만 먹은 적 있다, 손



6번, 초코 비스켓 중에 제일 맛있어요. 반박 시 당신 말이 맞아요 ㅠ

